

수련소 생활, 동아프리카 대리구



탄자니아 아루샤 은지로에 위치한 국제 수련소는 기도의 원동력이며, 수련자들은 이 영적인 집을 세우는 살아있는 돌과 같습니다. 수련소를 방문하는 모든 사람은 따뜻한 환영과 환대를 경험하며 기도를 통해 이 가족과 깊은 유대감을 형성합니다. 수련자들이 자신을 소개하는 순간, 많은 사람들은 이곳이 우간다, 케냐, 모잠비크, 탄자니아 출신의 수련자들이 함께하는 국제 수련소임을 알게 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수련자가 된가요?"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동아프리카 노트담 수련자의 삶은 착복식에서 시작됩니다. 수련자는 수도복, 십자가, 그리고 회헌을 받습니다. 이러한 상징들을 통해 성장하고 그리스도와 같은 모습으로 변화됩니다. 그리스도와 같아지려면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정서적으로, 심리적으로 성장해야 합니다. 이러한 성장은 수련자들이 다양한 수업과 세미나에 참여하도록 이끌며, 이를 통해 이해를 심화하고 자기 인식을 넓혀줍니다. 수업은 주로 수도회의 역사와 회헌을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수련자들은 청빈, 순명, 정결이라는 복음적 권고에 따라 예수님을 따르는 법을 배웁니다.

영적으로 수련자는 매일 미사와 교회의 기도에 참여합니다. 수련자의 식별 과정을 돕기 위해 피정, 연피정, 강연, 통합 세션이 제공됩니다. 이는 종종 특별히 중요한 결정에 직면했을 때 수행하는 신중하고 기도하는 숙고의 과정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선택은 우리 모두의 삶에 형태와 방향을 부여합니다. 수련자는 수련소에서 2년간 양성되는 동안 많은 관심을 받습니다. 수련장의 지도 아래 수련자는 성령의 활동에 주의를 기울이고 관대해지는 법을 배웁니다. 수련자는 잘 먹고, 운동하고, 건강 검진을 받고, 충분한 수면을 취함으로써 신체적으로 성장할 기회를 얻습니다. 또한, 음악, 카드 만들기, 장식, 요리, 정원 가꾸기, 닭 키우기 사업과 같은 프로젝트 운영처럼 재능과 기술을 개발하도록 격려됩니다. 이러한 양성 활동을 통해 수련자는 공동체의 삶을 지속하고 향상시킵니다.

또한, 2년 차에는 수련자가 공동체 체험을 할 기회가 주어집니다. 수련자는 기도와 공동체 생활, 사도직에 참여합니다.

성공적인 양성 기간 동안 가치관과 덕목을 함양하며, 유기 서원을 준비합니다.